

광주시 문학상 신설 추진… 한국 문단 최고령 101세 시인 정소파

“민족 얼 깃든 시조 살아나는게 내 소망”

광주에 101세 된 혼역 시인이 있다. 놀라운 것은 1920년대 대표 문예지 ‘개벽’으로 등단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매일 시를 쓴다는 사실이다. 시를 생각하면 흥안의 소년처럼 가슴이 뛴다. 시와 함께 살아온 인생, 시가 있어 축복받은 인생이다.

정소파 시인, 광주 출신 시조시인 정옹을 10일 봉선동 자택에서 만났다.

현역 최고령 시인인 정옹은, 광주시가 문화예술상 문학부문에 ‘정소파 문학상’을 추진한다는 〈광주 일보 11일자 12면〉에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광주시는 기존 박용철 문학상에 정소파 문학상을, 김현승 문

이후 정 시인은 ‘소년’, ‘신동아’, ‘신여성’ 등에 꾸준히 시조를 발표한다. 이즈음은 그의 문재(文才)가 점차 빛을 발하던 시기였다.

“처음엔 동요, 동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차츰 우리 시조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신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조를 쓰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지요.”

시조에 ‘미혹’된 것은 보통학교

시절 은사였던 노진수 국어선생님의 영향이 커다. 시에 음절을 붙여 부르던 모습에 단단히 끌이 꽂혔다.

정 옹의 시조에 대한 열정은 1940~5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꽂을 꽈운다. 1948년 조선중보 신춘문

1920년대 대표 문예지 ‘개벽’으로 등단

민족정신 깃든 시조 등한시 안타까워

마음건강 유지해준 시정신 ‘마음의 꽃’

학상을 주기 위해 문학부문을 보강할 예정이다. 생전에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시조가 짐체기에서 벗어나 널리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수를 넘은 현역 최고령 시인이라고 하기에는, 시인은 정정했고 총기 또한 여전했다. 세상의 사사로운 욕심은 모두 벗어버린 천진함도 묻어났다.

정소파 시인은 백석(1912~1995), 김용호(1912~1973), 이호우(1912~1970) 등과 1912년 동년 배로 현대시조를 개척한 우리 문학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1930년 ‘개벽’에 ‘별건곤(別乾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일제가 강제로 나리를 강탈해 판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참여시’였다.

예,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설매사’가 당선된다. 57년에는 개천절 경축 전국 백일장에서 시조부문 장원을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 시기에 정 시인은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접고, 교직으로 들어온다. 전남도청, 광산군청(지금 광산구)에서 근무를 하다 이후 경신여고, 전남중 등에서 국어교사를 한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시인들과도 교우했는데 노산 이은상, 가람이병기, 영광의 조운 시인과 시조를 매개로 우정을 나눈다. 청도 출신 이호우 시인과 동생 이영도 시인과는 서로의 수상 자리에 참석해 축하를 해줄 만큼 맘역한 사이였다.

지역 출신 시인인 융아 박용철(1904~1938), 다형 김현승(1913~1975)과도 남다른 추억이 있다.

“박용철은 나보다 아홉 살 위입니다. 박 시인의 고향이 당시 광산군 송정읍 소촌리였는데, 제가 광산군청에 근무했을 때 몇 번 그의 집



현역 최고령 시인 광주 출신 정소파 시인은, 광주시가 문화예술상 문학부문에 ‘정소파 문학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용아는 당시 ‘시문학’을 창간한 현대문학의 기수였을 만큼 중앙 문단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어요.. 다형은 뒤팔까 ‘찬물속의 물 같은 사람’이었죠. 시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지요.”

정 시인은 작금의 시조를 등한시

하는 풍조가 안타깝다. 시조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일이 깃들어 있는 데도 말이다.

지금 정 응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 큰아들 근우(73)씨는 광주일고, 광주고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지금은 사진작가로 활동

한다. 화가인 며느리 손임수(70)씨는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던 동양화가다.

건강 비결은 물었다니 돌아온 대답은 의외다. 고직생활 당시에 출퇴근을 위해 탔던 자전거와 ‘시정신’을 꿇는다.

“40년간 탔던 자전거가 몸의 건강을 지탱해줬다면 ‘시정신’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줬다고 봐요. 시란 맑은 정신에서 비롯되는데 몸을 바르게 해야 정신도 삽니다. 시는 투명한 시심을 바탕으로 피는 언어의 꽃이니까요.”

박성천기자 skspark@

하는 풍조가 안타깝다. 시조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일이 깃들어 있는 데도 말이다.

지금 정 응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 큰아들 근우(73)씨는 광주일고, 광주고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지금은 사진작가로 활동

한다. 화가인 며느리 손임수(70)씨는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던 동양화가다.

건강 비결은 물었다니 돌아온 대

답은 의외다. 고직생활 당시에 출퇴

근을 위해 탔던 자전거와 ‘시정신’을 꿇는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